광주시, 자동차부품 재제조 기반 구축

사업비 450억원 투자…송암·에너지밸리 산단에 특화·R&D단지 조성
미국·유럽 등 자연순환 위해 재제조 의무화…국내 시장 규모 1조원대

광주시가 송암산단과 에너지밸리산단을 중심으로 국내 대표 자동차부품 재제조 기반 구축에 나선다.

광주에 자동차 재제조가 도입되면 송암산단 모빌리티 도시재생사업과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220만평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정진욱 의원실과 광주그린카진흥원 공동 주최로 '자동차부품 재제조 순환경제허브 기술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 자동차부품 순환경제허브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광주 자동차부품 순환경제허브'는 송암산단의 자동차정비업체와 모빌리티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자동차부품 재제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단에는 재제조 성능평가 및 인증 장비를 구축해 기업 지원을 하고, 재제조 기법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시는 정부지원 선도사업으로 송암산단에 재제조 1단계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완성차 참여를 유도해 자동차부품 재제조 사업의 모델화를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는 4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송암산단에 수거·분해·분류·선별할 수 있는 플랫폼, 부품재제조 생산업체,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등 재제조 부품 생산단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재제조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35개 창업 등이 기대되며, 미래차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경정비(카센터) 1000곳 가운데 50%인 500곳을 단계적으로 업종 전환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신품 대비 50% 수준으로 낮춰 소비자의 구매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가격경쟁력에 따른 구매가 늘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에너지밸리산단에는 성능평가 연구개발(R&D)단지를 구축하고, 자동차부품 재제조 성능평가 지원과 제재조 기법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완성차 업체로 참여가 확대되면 자원소비 90% 감소, 고용 2.7배 증가, 경제효과가 높은 '자동차 생애주기 완성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기후위기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자동차산업에서 '광주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허브'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광주시는 순환경제 허브 도입과 관련해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스텔란티스 자동차 재제조 시설을 주목하고 있다.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및 재제조를 통해 '2038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텔란티스는 2038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800만개 엔진, 기어박스 등의 재제조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3조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탄소배출에 따른 환경문제와 자원고갈에 따른 자원순환을 위해 재제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친환경산업법' 등 재제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강홍윤 인하대학교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재제조산업 동향 및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재제조 시장 규모는 1조원대, 업체 수 1450여개로, 자동차 부품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재제조 산업이 활발한 미국 등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4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K-푸드 열풍… 몽골서 전남산 농수산식품 인기몰이

한국주간 행사에 시장개척단 파견
5000만원 판매·13억 계약 성과

전남도의 농수산식품이 몽골 현지인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며 5000만원 상당의 현지 판매와 13억원 상당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지난 1일까지 3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4 한국주간(KOREAWEEK)' 행사에 전남 수출 유망품목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사진〉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고흥군과 지역 중소기업 8개 사를 파견해 현지에서 전시와 판매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준비한 물품이 빠르게 소진되며 케이(K)-푸드에 대한 몽골 소비자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했다.

참가 기업은 대륙식품㈜, 매일식품㈜, ㈜바다명가, 농업회사법인 ㈜골든힐, 록바이오텍, 유한회사 김시월, ㈜푸른정식품, 완도물산 영어조합법인이다. 김, 유자차, 후리카케, 화장품 등 다양한 전남산 식품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판매되며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고흥군의 ㈜대진을 비롯한 참가 기업들은 전시 기간 동안 총 5000만원 이상의 판매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대진은 몽골의 유력 유통사와 13억원 규모의 계약을 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일부 기업은 까르프, CU, GS25 등 대형 유통사들과 수출 상담을 추진해 몽골 시장 본격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같은 성과는 몽골 내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전남도의 우수한 품질이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몽골 시장개척단 파견은 현지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전남 우수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몽골 행사에서의 성과를 발판삼아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 한국주간' 행사는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과 울란바토르시가 공동 주관했다. 전남도와 경북도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코트라(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해 행사를 더욱 알차게 구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파트 화재대피 요령 VR로 미리 연습하세요"

광주시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 체험장 조성

광주시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공동주택(아파트) 주민 맞춤형 화재대피능력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화재대피 가상현실(VR) 콘텐츠·체험시설'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 화재에 대비 건축물 구조와 환경적 특성을 가상현실(VR)로 미리 체험하고, 재난상황, 피난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2월 3일까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2층 화재안전체험구역 내 사회재난대응관에 제작·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가상현실(VR) 콘텐츠는 공동주택(아파트) 내 피난시설인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사다리, 완강기 등 4종을 제작한다. 시민들은 가상현실(VR)을 통해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화재대피상황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시설이 완공되면 10명의 시민들이 동시 체험 가능하다.

체험 예약 등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누리집(https://www.gwangju.go.kr/gjsafe119/)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화재대피 길라잡이' 누리집을 개설해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 피난시설과 피난기구 등 사용법을 안내하고 화재대피요령 영상 등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연출로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청년 체험형 인턴 30명 공개 채용

19일까지 원서 접수

광주교통공사는 "하반기 청년 체험형 인턴 직원 3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사무 16명·기술 14명으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을 신청한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광주교통공사는 학력, 연령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근무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원서 접수는 오는 19일 오후 4시까지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운영기관인 인지어스 광주지사(062-454-8038)와 유선 상담을 거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광주교통공사는 오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확대

402→412항목…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기존 402항목에서 412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점 검사항목 확대에 따른 것이다.

생산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약 성분이 추가됐다. 여기에 시험법 변경으로 분석 가능해진 항목을 더해 412항목을 시행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순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농산물, 부적합 빈발 농산물 등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은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신속한 압류, 폐기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문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장은 "이번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 차단 및 법적 조치를 더욱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